

An Analysis of the Commemorative Phenomenon about Traumatic Loss Caused by a Disaster

- Case of Sewol Ferry Disaster -

Hee Jeong Moon[#], Hye Sun Joo, Hyun Nie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o explore how the responses of traumatic loss caused by a disaster have been revealed in commemoration events. For this purpose, those holding the commemoration events for the Sewol ferry victims are grouped into the three groups; the bereaved, a civic group, and a government organization in order to estimate the frequency of commemorations over time. The study also identifies the people's emotions revealed in the commemoration events and their themes. Commemoration events were most frequently held in May 2014 and in April 2015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isaster; the primary emotions found in the events are sorrow and anger; and the theme most frequently revealed is 'memory' of the disaster. In particular, since most of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high school students, sadness about the fact that the adolescents who would have needed to be protected by adults died at their early age due to adults' wrongdoing was frequently found in the commemoration events for the Sewol ferry victims.

Key words: disaster, traumatic loss, commemoration, Sewol ferry disaster

1. 서론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따르면 재난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 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 시설과 생활 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UNDP, 1996). 즉, 재난이란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광범위한 파괴와 고통을 초래하는 외상(Trauma) 사건인데(Morris, 1982), 재난은 필연적으로 상실을 유발하며 특히 재난으로 발생한 상실은 일반적인 상실을 넘어서서 갑작스럽거나 폭력적인 죽음과 같은 '외상성 상실(Traumatic Loss)'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상실을 직접 경험한 유가족뿐

[#] The 1st author: Hee Jeong Moon, Tel. +82-2-3277-2638, e-mail. tofreeway@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Hyun Nie Ahn, Tel. +82-2-3277-2643, Fax. +82-2-3277-4010, e-mail. ahn12@ewha.ac.kr

만 아니라(Walsh, 2007; Parkes & Prigerson, 2013; Boss & Ishii, 2015) 상실의 목적을 통해 대리적으로 상실을 경험한 사람 역시(Williams, *et. al.*, 2003; Allen, 2008; Malamah-Thomas, 2011) 상실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개인은 상실 이후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며 상실과 관련된 메시지를 도출해내고자 하기도 한다.

특히 상실 이후의 반응 중 상실로 인한 정서적인 반응을 '비에(Bereavement)', 그리고 이러한 비애를 극복하고 상실에 대처하는 과정을 '애도(Grief)' 과정이라고 한다. Kast(1988)에 따르면 애도란 '상실로 인한 충격을 받은 사람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자기와 세계에 대한 체험을 이루게 하는 감정'이다. 즉, 애도 과정이란 재난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 등의 상실을 생존자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은 외상으로 인한 애도(Traumatic Grief)를 불러일으키는데(Halpern & Tramontin, 2007) 일반적으로 재난은 애도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재난 사건으로 인한 상실은 갑작스러우며 부적절한 시기의 죽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와 같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고, 부적절한 시기의 죽음에 대한 애도 과정은 일반적인 애도 과정에 비해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Stroebe, *et. al.*, 2002).

추모(Commemoration)란 중요 인물·사건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느 문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실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이다. 추모는 일반적으로 애도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상실을 경험한 후 애도 과정에 있는 이들을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문화에서는 애도 과정에서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도 의식인 추모를 행하는데 상실한 대상이 그 대상의 주변 인물과 주변 상황에 국한된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수준의 애도일 경우 장례식, 제사, 기일 기도 등의 개인적 추모 행위를 통해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상실한 대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

을 미치는 인물이거나 상실을 유발한 사건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일 경우 이에 대해 공동체, 국가, 때로는 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 수준에서 집단적인 애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 이상의 범위에서 애도 의식이 행해지는 것을 집단적 추모라고 한다. 즉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상실은 개인적인 영역의 애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의 애도를 필요로 하는데 사회 공동체의 애도가 바로 집단적인 추모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재난 이후의 공동체 레벨에서 발생하는 상실과 애도, 그리고 추모는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공동체의 추모 행위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추모의 형태는 공동체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추모의 핵심은 추모가 사회 집단이 함께 상실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상실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메시지를 도출해 내면서 상실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며, 추모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상실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Parkes, 2008).

한편 추모의 과정에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ARC)에서 발간한 재난정신건강 매뉴얼(APA, 2010)에 따르면 실제로 재난 후 첫 번째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개인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정상적인 외상 반응들로는 감정이 강렬해지고 때때로 예측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평소보다 예민하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특히 불안하고 신경질 적이 되거나 우울해지기도 한다. 개인마다 재난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와 이를 다루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애도 과정의 기본 원칙은 '개인마다 상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정서의 표현 형태를 발견하여 느껴지는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다(Gudjons,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을 애도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기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일련의 유사한 정

서를 경험하게 된다. Yassen(1995)은 상실로 인해 일반적으로 불안, 죄책감, 공포, 무감각, 슬픔, 분노, 적대감, 취약성, 무기력함, 압도된 정서 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으며 Kubler-Ross의 애도 모델과 Mckenna의 애도 모델에서도 슬픔, 불안, 분노, 죄책감, 우울의 정서가 상실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일련의 정서들 중 일반적으로 상실 이후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정서는 슬픔과 분노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반응으로 보인다(Goleman, 2003). 또한 특히 외상성 상실에서 이후 발생하는 정서 중 눈에 띄어 볼 수 있는 정서는 불안과 공포이다(Sullender, 2010). 이는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찾아온 외상성 상실이 불안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며 이때의 불안과 공포는 상실로 인한 슬픔을 넘어서는 감정이다. 그러나 외상 이후에 대부분 부정적 정서가 먼저 전면에 드러나기는 하지만 상실을 수용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정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Gilliand & James, 1996) 대표적인 긍정 정서로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사랑, 감사 등의 정서가 있다(Fredrickson & Tugade, 2003).

또한 사람들은 추모 행위에서 상실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상실과 관련된 메시지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 이는 추모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추모 행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 즉 추모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상실에 대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Corning & Shuman, 2013; Pivnick, 2011; Auwera & Schramme, 2014). 특히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대규모 추모 행사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실한 대상에 대해 기억을 되새길 수 있게 하고, 사건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추모의 또 다른 목적은 재난으로 발생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Summerfield(1995)에 의하면 재난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외상들에 대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 추모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재난의 원인과 해

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연결시켜 현재 발생한 재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발생할 재난에 대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은 추모를 통해 재난이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모든 상실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의 위기와 연관된다(Parker, 2006). 특히 상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변화하며, 이와 연관 지어 상실을 일으킨 사건의 의미를 찾게 된다. 가령,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왜 그가 죽어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 사건이 나의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 비극에 기여할만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인가, 이 비극이 벌어질 때 신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등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변화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건과 이로 인한 상실의 의미를 찾게 된다(Janoff-Bulman, 1989; Kaler, *et. al.*, 2008). 이상을 종합해볼 때 재난 사건 발생 이후 추모 의식을 통해 공동체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사건으로 변화한 개인의 신념체계와 연관지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찾음으로써 대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재난을 연관시켜 미래의 재난 사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상실에 대한 추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상실한 대상의 속성이 상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모든 상실은 애도를 동반하지만 특히 상실한 대상이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였을 경우 상실의 고통은 극대화된다. Rando(1997)는 어린이 청소년이 개입되어 있을 때 대리적인 외상이 극에 달한다고 보았으며, 가족 내 상실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녀의 죽음은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의 죽음에 비해 충격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크고, 이에 따른 고통이 더 극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96; Litterfield & Rushton, 1986). 이처럼 재난으로 상실한 속성이 때 이른 죽음을 맞은

어린이나 청소년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의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상실의 슬픔은 더욱 증대되며 이러한 상실이 발생한 재난은 일반 재난에 비해 대중에게 보다 충격적인 재난으로 기억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대규모 재난인 세월호 사건 추모 행사들의 특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이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모 행사를 주최한 주체를 구분하여 각 주체별로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모 행사의 빈도수를 살펴보았으며, 추모 행사에서 드러내는 정서와 추모의 주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추모 행위에서 드러난 추모 양상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이 가지는 속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추모 행사에서 각 주체별로 추모 행사에서 보이는 정서와 추모 행사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 추모 행사에 대해 보도한 신문기사를 내용분석 방법(contents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방법은 대표적인 문헌 연구 방식으로 특히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Keppl & Zedick, 1989). 분석 단위는 개별 기사 본문 내용으로 하였으며 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생인 두 명의 코더가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더는 코딩 실시 전 연구의 취지와 분석 유목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충분히 교육받고 이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전체 492개의 분석 대상 기사의 약 10%인 50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예비 코딩을 실시하였다. 두 코더간 예비 코딩 신뢰도가 80% 이상에 도달한 이후 본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코더간 신뢰도는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고 전체 신뢰도는 0.89였다. 코딩 이후 각 범주의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추

모 주체별로 개별 추모 정서와 주제의 출현 여부가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 Test, x^2)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검증(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이 되는 추모 행사 관련 신문 기사는 웹 사이트 분석 평가 서비스 업체 Internet Trend TM(www.ineternettrend.co.kr)의 분석 리포트를 참조하여 뉴스·미디어 카테고리에서 포털 사이트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수집하였다. 기사 수집 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서 사건 발생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까지 1년 중 발생한 추모행사 관련 기사로 한정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세월호 추모'로 설정하였으며 네이버 뉴스·미디어 카테고리에 검색된 신문 기사들 중 내용을 검토하여 단일 추모 행사에 대한 중복된 기사들을 제외하고 총 540개 추모 행사에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였는데, 단일 추모 행사를 서술한 기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기사 내용의 단어 수가 더 많은 기사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 중 추모 행사를 개최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신문 기사 48개를 제외하고 총 492개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3. 분석 유목

추모 행사를 개최한 주체별로 추모 행사에서 드러내는 감정과 추모 행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양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추모 행사 주제', '추모 행사에서 표출되는 정서', '추모 행사의 주제'의 범주를 나누고 각각의 세부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 먼저 추모 행사를 개최한 주체는 크게 ① 유가족 ② 시민단체 ③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기사 중 유가족과 타 주체가 함께 개최한 행사는 유가족을 행사 주체로 코딩하였으며,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한 행사는 공공기관을 행사 주체로 코딩하였다. 유가족 항목의 경우

유가족이 주최한 대부분의 행사를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이 함께 주최하였기 때문에 유가족의 범주에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 가족을 포함시켰다. 시민단체 항목에 포함된 주체는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였고, 공공기관으로 코딩된 주체는 교육청, 경찰서, 시, 도 등의 정부기관과 공기관이 포함하였다.

추모 행사에서 표출되는 정서 항목은 상실 이후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한 선행 애도 관련 연구에 따라 (Gilliand & James, 1996; James & Gilliland, 2001; Hooyman & Kramer, 2008; Ochberg, 1988; Worden, 2008; Allen, 2008; Yassen, 1995) 먼저 상실 이후 가

장 빈번히 등장하는 부정적 정서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실 이후 가장 빈번하게 표출되는 감정으로 상실, 자포자기, 어려움, 무기력감, 실망감 등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인 ‘슬픔’, 개인의 편안한 상태가 침범됨으로써 느끼는 강렬하고 불편한 감정인 ‘분노’ (Goleman, 2003; Mithander & Mithander, 2007), 자신의 행동이 합당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수치심’(Kaufman, 2004),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행위나 사고에 잘못이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심리상태인 ‘죄책감’(Miller, 2012; Malamah-Tomas, 2011), 특히 외상성 상실 이후에 두드러지는 정서이며 위험이 닥칠 것처

Table 1. Category analysis

Content Analysis Category	
Main Agent	The Bereaved Family of victim(ex. ○○’s father, the bereaved committee)
	Civic Group A type of organization composed of regular citizen(ex. ○○art foundation, ○○university, ○○high school, ○○citizen, ○○committee, ○○religious organization, overseas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A juristic person which is backed through public funds and controlled by the state(ex.○○si, ○○do, ○○education Office 등)
Emotion	Sadness Emotional pain associated with, or characterized by feelings of disadvantage, loss, despair, grief, helplessness, disappointment and sorrow.(ex. “It was too sad”, “I cried my eyes out” / “너무 슬펐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펄펄 울었어요”)
	Anger A strong uncomfortable and emotional response to a perceived provocation(ex. “I got mad, I don’t know why things happen to me” /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화가 미칠 듯이 났어요”)
	Shame The painful feeling arising from the consciousness of something dishonorable, improper, ridiculous(ex. “We have to feel shame as adults”, “We have to feel shame about our civic consciousness level” / “어른으로써 부끄러운 일이죠”, “왜 우리 시민의식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부끄러워해야 돼요”)
	Guilty Having committed an offense, crime, violation, or wrong, especially against moral or law(ex. “I feel so sorry to them”, “It grieves me to see our irresponsible” /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죠”)
	Fear A feeling induced by perceived danger or threat (ex. “I feel fear about recurrencing of the accident”, “It is fearful to have a dream about missing child” /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늘 불안하죠”, “매번 아이들이 사라지는 꿈을 꾸는 게 두려워요”)
Positive Emotion Emotion like gratitude, interest, love, enjoy, happy, hopeful, peaceful, proud, amazing(ex. “Thank you for coming as my child”, “Don’t forget, mom always loves you”, “You were my happiness” / “그래도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하는거 늘 잊지 말고”, “너는 내게 행복이었다”)	
Subject	Remem-bering Loss Express sympathy with loss(victim of disaster, loss product, faith, hope, possibility about future) and act to remember a loss(ex. “Pray for the bliss of dead”, “Remember you guys”, “I will achieve the dream instead of you”, “We will make an effort to make better society”, “Don’t sick in heaven” / “명복을 빕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너네들이 꾸던 꿈 꼭 대신 이루어줄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야해”)
	Find a cause of disaster Find the truth of the disaster and make clear a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ex. “We have to find a cause of disaster and a person in charge to punishment” /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해야한다”)
	Seeking a resolution Find a way to recover a damage from disaster and discussion about relapse prevention(ex. “It must not happen again”, Demand salvaging the sunken ship, About compensation, Statute amendments, Safety training /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Find a meaning (idealistic, scientific, social, religious, psychological) The ascription of meaning about disaster and victim(ex. “We can do something by their sacrifice”, “They went to heaven following God” / “그들의 희생을 통해 ~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것이다”)	

럼 느껴지는 부정적 정서 상태인 '두려움'(Sullender, 2010; White, 2004)의 다섯 가지의 부정정서에 대해 코딩하였다. 또한 상실 이후에 드러나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감사, 흥미, 사랑 등의 상실한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긍정적 감정(Fredrickson & Tugade, 2003)을 포괄하여 '긍정정서'로 코딩하였으며 한 기사에 두 개의 이상의 정서가 드러날 때에는 중복코딩을 허용하였다.

추모 행사의 주제 역시 9/11과 같은 대규모 재난 이후 대중의 반응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Miller, 2012)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인 상실한 대상에 대해 조의를 표하며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상실에 대한 기억'(Corning & Shuman, 2013; Pivnick, 2011; Auwera & Schramme, 2014),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진상파악과 사건 발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하는 '사건 발생 원인의 이해'(Summerfield, 1995),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해결책과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해결 방안 논의'(Corning & Schuman, 2013; Saito, 2011), 재난과 희생자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Slochow, 2011; Updegraff, et. al., 2008) 네 가지 유목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고 정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사에 대한 중복 코딩을 허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유목과 유목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III. 연구결과

1. 추모 주제별 추모 행사 빈도 분석

각 주제별로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각 주제별로 1년 동안 주최한 추모 행사를 1달 단위로 나누어 빈도 분석한 결과를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이 된 492건의 추모 행사를 대상으로 각 주제별 추모 행사 개최 횟수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추모 행사를 주도한 것은 시민단체였다. 시민단체는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된 492개의 추모 행사 중 77.6%인 382개의 추모행사를 주최하였으며 공공기관이

12.6%인 62건, 유가족이 9.8%인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월호 추모 행사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에 추모 행사가 가장 많았던 달은 사건 발생 직후인 4월과 5월이었다. 4월의 추모 행사는 사건 발생 직후 대규모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사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를 무사히 구출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진 행사들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보름 이후인 5월에는 점차 실종자들의 생존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망했다는 가정 하에 그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또한 1년 동안의 추모 행사들 중 참여 인원이 많았던 대부분의 추모 행사가 주말과 공휴일에 밀집되었는데, 5월에 공휴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의 다른 달에 비해 활발히 추모 행사가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실종되고 사망한 자녀들의 명복을 비는 행사가 많았으며,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 세대로서 부끄러움을 담은 추모 행사가 있었고,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교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또한 5월 2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는 불교계 각층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특히 불교계 단독 행사 외에도 기독교, 천주교계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5월에 휴일이 많았던 만큼 전국 곳곳에 열린 추모 행사에 전 가족이 동원 되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들에 참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에는 5월보다 추모행사 빈도는 감소했으나, 6월 3일에 세월호 발생 49재를 맞이하여 불교계 49재 행사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49재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로 우리나라의 불교적 문화가 반영된 행사로서 서구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추모 의식이다. 이후 7월과 11월에 추모 행사 횟수가 잠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7월에는 세월호 사건 발생 100일(2014년 7월 14

Table 2. Monthly frequency of commemoration events

	'14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5 Jan	Feb	Mar	Apr	Case(%)
The Bereaved	5	0	1	4	0	0	0	4	2	3	6	11	13	48 (9.8)
Civic Group	49	51	11	13	5	7	4	14	5	15	15	15	178	382 (77.6)
Government Organization	1	1	0	0	0	0	1	1	0	3	1	2	52	62 (12.6)
total	55 (11.2)	52 (10.6)	12 (2.4)	17 (3.5)	5 (1.0)	7 (1.4)	5 (1.0)	19 (3.9)	7 (1.4)	21 (4.3)	22 (4.5)	28 (5.7)	243 (49.4)	4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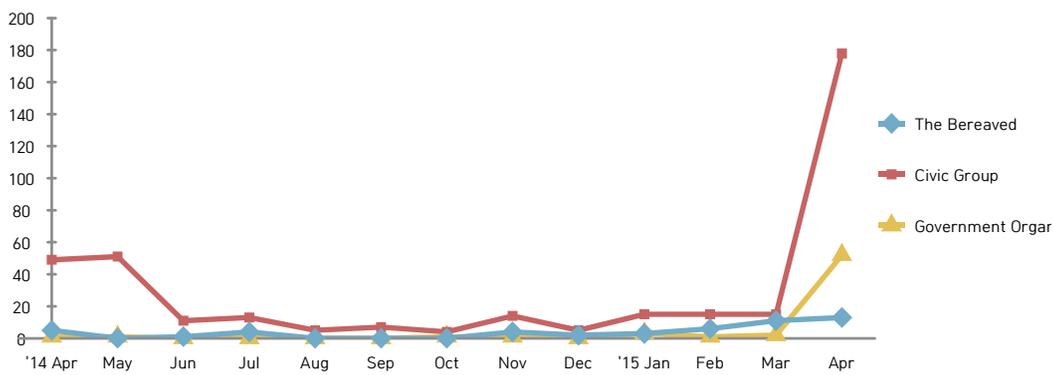


Figure 1. Monthly frequency of commemoration events

일), 11월에는 세월호 사건 발생 200일(2014년 11월 1 일)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 행사로 인해 추모 행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1월에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제정 관련 항의, 세월호 인양에 관한 항의 시위와 동시에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염원하는 추모하는 행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대학교의 가을 축제 시즌이었던 9, 10월에도 대학 축제에서 세월호를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한 해를 마감하며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는 미사들을 개최하였고 일반시민들이 주최한 2014년 송년행사에서도 당해 가장 큰 재난이었던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행사들이 주로 열렸다.

해가 바뀐 후 2015년 1월부터 추모 행사 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 4월에는 전체 추모 행사의 50%에 육박하는 243건의 추모 행사가 있었다. 먼저 1월에는 해가 바뀌는 것을 알리는 1월 1일 광화문 타종식에서 희생자

수 만큼의 304번의 종을 치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또한 새해를 맞아 각종 시민단체가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각종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책, 다큐멘터리, 음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2월에는 세월호 사건발생 300일을 맞아(2015년 2월 9일)에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으며, 설날을 전후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식이나 설날 맞이 추모 집회, 추모 미사 등이 열렸다.

2015년 3월 이후 4월까지의 세월호 사건 발생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추모 행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유가족의 경우 유가족이 주최한 전체 행사의 70%가 2015년 이후에 집중되었고, 특히 2015년 3, 4월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추모 행사 개최 건수를 기록했는데 세월호 1주기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의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각종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를 찾아 세월호

진상 규명에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추모 활동들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집계된 공공기관의 행사 중 84%가 2015년 3,4월에 집중되었으며 전국 시, 도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개최하였지만 추모 행사를 개최한 가장 주된 공공기관은 전국의 교육청이었다. 특히 세월호 1주기인 4월 16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많은 교육청들이 일주일 이상의 집중 추모 기간을 제정하여 관할 학교와 소속 기관에 노란 리본을 달도록 지시하고 추모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4월 16일에는 자율적 묵념을 실시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행사를 개최한 시민단체들에서도 이 시기에 특히 대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연맹 등이 추모 행사를 기획하며 세월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였다.

2. 추모 주체별 추모 행사에서 표현된 정서의 차이
 개별 추모 행사에서 추모 주체별로 표현된 주요 정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코딩 정서 중 추모 행사에서 주체에 상관없이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정서는 슬픔이었다. 전체 492개의 기사 중 슬픔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이 표현된 기사는 총 116개(23.6%)였으며 분노 88개(17.9%), 죄책감 45개(9.1%), 수치심 28개(5.7%), 긍정정서 21개(4.3%), 공포 11개(2.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추모 주체별로 드러내는 정서 빈도 순위는 전체 순위와 차이를 보였는데 유가족과 시민의 경우 ‘슬픔>분노>죄책감>수치심>긍정정서>공포’ 순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슬픔>죄책감>분노>수치심>공포>긍정정서’ 순으로 나타났다.

추모 주체별로 추모에서 표현된 주요 정서들의 출현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슬픔, 분노, 죄책감, 긍정정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 행사에서 슬픔 정서를 가장 많이 표출한 집단은 유가족 집단이었으며 시민과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x^2=13.12, p<.001$). 분노 정서 역시 ‘유가족>시민>공공기관’ 순으로 유가족이 분노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x^2=9.91, p<.01$), 긍정정서 역시 유가족이 타 주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이 표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sher's exact test*=8.89, $p<.05$). 죄책감 역시 주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민들이 주최한 추모 행사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가장 죄책감을 많이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x^2=6.12, p<.05$).

개별 정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가장 많이 표출한 집단은 유가족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녀를 상실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거나 절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자녀들을 제때 구조 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내용이 많았다.

죄책감 감정과 관련해서는 시민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죄책감의 표출 수준이 높았는데, 주된 죄책감의 내용은 ‘어른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충분히 더 많은 생존자를 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한 죄책감’,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책’ 등을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주로 기성세대가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여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담고 있는 행사들이 많았다. 또한 유가족(생존자 포함)이 가진 죄책감의 내용은 주로 ‘나만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수치심과 공포 정서는 다른 정서들에 비해 드러난 빈도가 낮았으며 추모 집단 간 차이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수치심 정서의 내용은 ‘먼저 간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다’,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른으로써 수치스럽다’와 같은 반응이었으며 유가족의 반응 중에서는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모로서의 부끄러움’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또한 공포심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무섭다’,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긍정정서와 관련하여 특이할만한 점은 유가족 집단

Table 3. Emotion differences depend on a main agent in commemoration events

		Main Agent			Total	test value
		The Bereaved (48case)	Civic Group (382case)	Government Organization (62case)		
Emotion	Sadness	21(43,8)	85(22,3)	10(16,1)	116(23,6)	^a 13,12 ^{***}
	Anger	15(31,3)	68(17,8)	5(11,1)	88(17,9)	^a 9,91 ^{**}
	Shame	5(2,7)	19(5,0)	4(3,5)	28(5,7)	^b 2,69
	Guilty	9(4,4)	30(7,9)	6(5,7)	45(9,1)	^a 6,12 [*]
	Fear	2(4,2)	8(8,5)	1(1,6)	11(2,2)	^b 1,28
	Positive	5(10,4)	16(4,2)	0(0)	21(4,3)	^b 8,89 [*]

a. ^{***} $p < .001$, ^{**} $p < .01$, ^{*} $p < .05$
 b. Allow overlapping coding
 c. test value a: χ^2 test value / test value b: fisher's exact test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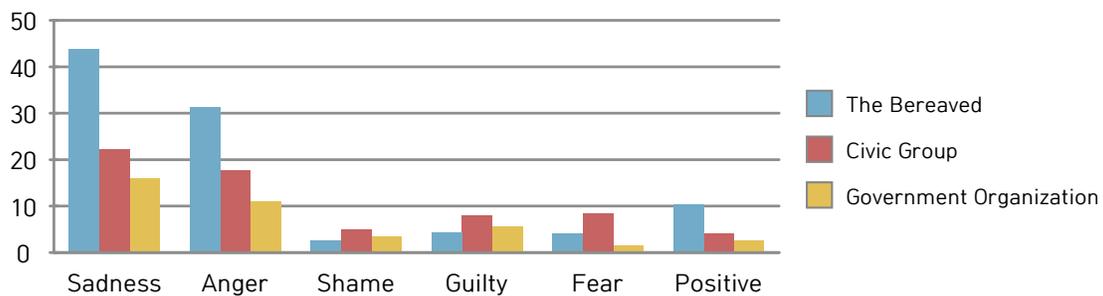


Figure 2. Emotion differences depend on a main agent in commemoration events

에서 시민과 공공기관에 비해 유의미하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긍정정서를 많이 표출한 점인데, 총 48개의 기사 중 5개의 행사(10.4%)에서 유가족의 긍정정서가 드러났다. 긍정정서의 주된 내용은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우리는 영원히 너를 기억하고 사랑할거야’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등과 같이 떠나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행복과 감사 등의 내용이었다.

3. 추모 주체별 추모 행사의 주제

개별 추모 행사의 주요 주제가 추모 주체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추모 행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주제는 사건과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추모 행사 주제와 관계없이 사건에 대한 ‘기억’ 관련 주제는 총 444개로 전체 추모 행사 중 90.2%의 행사에서 기억 관련 주제가 드러났으며 이는 모든 주체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주제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빈번히 표출된 주제는 세월호 이후 발생한 문제의 ‘해결’(157개, 31.9%),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된 주제(130개, 26.4%)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찾자는 주제를 드러낸 추모 행사가 45건(9.1%)이었다. 그러나 각 주체가 주최하는 추모 행사의 주제 순위는 차이를 보였는데 유가족의 경우 ‘사건에 대한 기억>사건의 원인 규명>사건 해결 방안>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 순이었으나 시민이 주최한 추모 행사의 주제는 ‘사건에 대한 기억>사건의 원인 규명>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사건 해결 방안’ 순이었으며, 공공기관 추모 행사의 주제는 ‘사건에 대한 기억>사건의 원인 규명>사건에 대한 의미 찾기>사건 해결 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을 통해 주체 별 추모행사에서 표현된 주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주제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대한 기억 관련 주제에서는 공공기관이 이 주제를 가장

많이 드러냈으며, 시민과 유가족이 그 뒤를 이었다($x^2=9.74, p<.01$).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제는 시민이 주최한 행사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으며 유가족과 공공기관 순으로 나타났다($x^2=28.06, p<.001$).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 관련한 주제는 유가족이 가장 많이 드러내었으며 공공기관과 시민이 그 뒤를 이었다($x^2=15.40, p<.001$).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주제는 공공기관, 시민, 유가족 순으로 나타났다($x^2=6.49, p<.05$).

각 주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월호 사건에서 주제에 관계없이 추모 행사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기억’ 주제에서 기억의 대상은 다양했는데 가장 주된 기억의 대상은 희생된 아이들과 그들이 살았던 삶이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전개 되어 온 잘못된 해결방안들에 대해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가 된 그들의 희생에 대한 기억,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

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반면 유가족이 주체가 된 행사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제의 비중이 전체 유가족 주최 행사 중 50%를 넘어 타 주체에 비해 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유가족이 주최한 행사에서는 특히 ‘철저한 원인 조사’, ‘책임자 색출’, ‘진상 규명’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 세월호 인양 과정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주제가 포함된 추모 행사가 많았는데 공공기관의 추모행사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진 추모 행사가 10%도 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 주제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제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공공기관이 사건의 해결 방안 논의의 주제는 적극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사건의 재발 방지’, ‘세월호 피해자 보상’,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등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공기관 중 교육계 관련기관에서는 주로 다시 위기 상황이

Table 4. Subject differences depend on a main agent in commemoration events

		Main Agent			Total	test value
		The Bereaved (48case)	Civic Group (382case)	Government Organization (62case)		
Subject	Memory	38(79.2)	346(90.6)	60(96.8)	444(90.2)	^a 9.74**
	Cause	26(54.2)	98(25.7)	6(9.7)	130(26.4)	^a 28.06***
	Resolution	23(47.9)	105(27.5)	29(46.8)	157(31.9)	^a 15.40***
	Meaning	3(6.3)	31(8.1)	11(17.7)	45(9.1)	^a 6.49*

a. *** $p<.001$, ** $p<.01$, * $p<.05$
 b. Allow overlapping coding
 c. test value a: x^2 test value / test value b: fisher's exact test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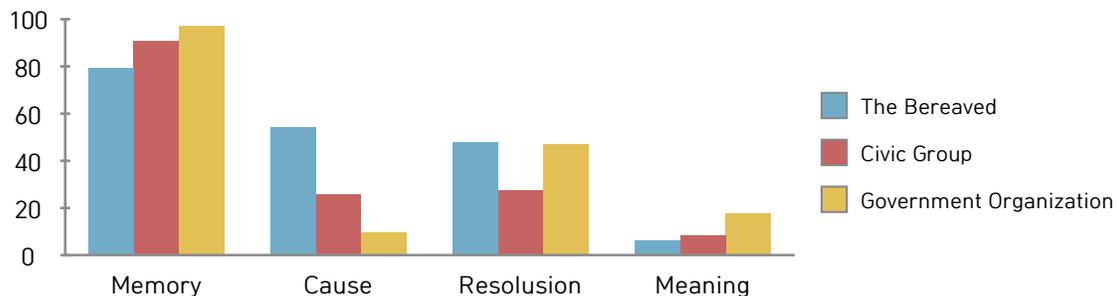


Figure 3. Subject differences depend on a main agent in commemoration events

발생하더라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 반면, 교육 관련 기관 이외의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태 수습을 위한 ‘재난 관련 법령 개정’, ‘재난 지원 체계 개선’, ‘유가족 보상’ 등의 주제를 내세운 추모 행사를 주로 개최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찾는 주제의 비율도 공공기관이 타 주체에 비해 높았는데, 이때 공공기관, 특히 교육계 이외의 공공기관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주로 부여한 의미는 ‘세월호 사건을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면 유가족과 시민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후 기존의 신념 체계가 붕괴된 것과 관련된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담은 주제들이 자주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세상은 불행한 곳’이라는 의미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안전 사회에 경종을 울린 만큼 미래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도약하자’라는 의미를 도출한 것과는 상반되는 의미이다. 신뢰와 관련한 의미 이외에 주로 유가족과 시민사회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도출된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것’, ‘아이들은 잠깐 우리 곁에 왔다 간 천사’ 등의 의미가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의 반응이 추모 행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추모 행위를 사례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모 행사 빈도가 가장 많았던 달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5월과 사건 발생 1주기인 2015년 4월이었으며, 사건 발생 100일, 200일, 300일, 1주기 등의 기념일이 포함된 달에 추모

행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모 행사의 주된 주체가 된 집단은 시민단체였고 분석 대상이 된 492건의 추모 행사 중 77.6%인 382건의 추모 행사를 시민단체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 행사에서 드러난 가장 주된 정서는 슬픔과 분노였으며 특히 유가족 집단이 개최한 추모 행사에서 슬픔과 분노가 표출된 비율이 타 집단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유가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추모 행사에서 떠나간 자녀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긍정정서 역시 많이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모 행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든 집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주제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 집단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해결 방안을 모두 추모 행사의 중요한 주제로 내세운 반면 공공기관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언급보다는 사건으로 벌어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추모 행사 빈도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2014년 중 5월에 가장 많은 추모 행사가 있었다는 것과 종교적 기념일에 추모 행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2014년 중 가장 많은 추모 행사가 5월에 개최된 것에 대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가정이 구성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많았던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피해자의 속성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슬픔을 겪고 있는 점,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승들 역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점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 기념일과 관련하여 49재,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종교 기념일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계 등의 종교단체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많이 개최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종교계가 주최하는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는데 이는 종교가 가진 치유적 역할과 연관지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을 종교의 치유적 기능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가장 빈번히 드러난 정서와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Lee,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우울(슬픔)과 분노가 가장 주된 정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슬픔>분노>죄책감>수치심>공정정서>공포’ 순의 정서가 드러났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9/11사건 이후에 드러난 주된 정서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슬픔과 분노 가장 빈번히 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Feigenson, 2002; Small, *et. al.*, 2006). 또한 유가족이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까운 가족을 상실하였고 특히 가족의 상실 중 자녀의 상실이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Kim, *et. al.*, 1996; Litterfield & Rushton, 1986) 타 집단에 비해 유가족 집단에서 슬픔과 분노 정서가 특히 두드러지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정서와 관련하여 특이할만한 점은 재난으로 인해 상실한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인 유가족 집단이, 상실한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 비해 긍정 정서를 더욱 유의미하게 많이 드러낸 점이다. 특히 유가족 집단은 세월호 희생자와 관련하여 희생자가 생전에 썼던 글을 모아 추모 도서를 발간하거나 생전에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학생에게는 추모 전시회를, 밴드 활동을 즐겨 했던 학생을 위해서는 추모 밴드 공연을 열어주는 것 등의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행복이나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희생자들이 꿈꾸었던 미래를 기억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와 같이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며 희생자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마련된다면 유가족이나 희생자와 가까웠던 지인들이 겪고 있는 상실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모의 주제와 관련하여 유가족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추모 행사에서 사건을 기억하겠다는 주제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식을 잃은 극도의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유가족에게 더욱 고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유가족 집단에서 여타 집단에 비해 기억과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주제에서는 유가족의 경우 사건의 원인과 해결을 모두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영국에서도 FA컵 준결승전 경기 시작 6분 만에 과도한 입장객 수로 인해 96명이 압사하고 사망자 중 41명이 10대 청소년이었던 ‘힐스보로 참사(Hillsborough disaster)’가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영국 정부에서는 만취한 관중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거짓 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긴 투쟁 끝에 사건 발생 23년 만에 경찰의 무능, 판단 착오, 대처 미흡이 대참사의 원인임을 명백히 밝혀내고 정부, 언론, 정당의 사과를 받았다(Williams, 2012). 세월호 사건과 힐스보로 사건 이후 유가족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유가족이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을 통해 자녀를 잃은 억울함을 풀고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유가족의 소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사건의 해결에 대한 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난 점이 부각 될 것이고 이에 공공기관은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또한 공공기관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드러낸 이유는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에 집중할 경우 정부 기관에 책임 소재가 돌아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겠

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추모 행사의 양상은 재난 사건 희생자의 속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의 대상은 대부분 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게 집중되었는데 실제로 세월호 침몰로 인해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친목모임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던 60대 17명 중 12명 역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가족 이외에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사망한 고등학생들이 가진 특성이 사건 발생 이후 대부분의 추모가 그들에게 집중된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생이자,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라는 속성을 가진다. 희생자들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사회에서는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했던 학생이자 자녀와 청소년의 위치에 있었던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아직 성인들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때 이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분노 등의 정서를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드러난 정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른들이 잘못했고,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 수치심이 든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 학생들이 사건 발생 당시 어른들의 미숙한 처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움이 추모의 정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된 사망자였던 재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모 양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28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만 5세-10세인 초등학생이었던 2012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추모 대상이 사망한 초등학생들에 집중되었으며, 추모 활동에서 아이들을 상실한 슬픔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어른들의 다짐이 드러났다(Barron,

2012). 또한 2014년 파키스탄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해 총 148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사망자 중 132명이 만 8세-18세 학생이었는데 어린 학생들의 사망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보호 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대한 분노 정서가 크게 일어났다(Biberman & Zahid, 2016).

그러나 사망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집중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추모의 경우 사망한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죄책감이 드러난 앞선 사례들의 추모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먼저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 대학에서의 총격사건으로 교수와 대학생 3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분위기가 만연했던 현상은 이전 사례들과 같지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는 달리 희생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언급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총기 난사 당시 학생들이 피할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범인을 온 몸으로 저지하며 버티다가 희생된 노교수에게 깊은 애도와 존경의 뜻을 담은 메시지가 많았다(Littleton, *et. al.*, 2009). 또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서도 총 2,7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75-80%의 희생자가 성인 남성이었었는데 이에 대한 추모에서는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드러나기보다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재난을 발생시킨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정서가 더 빈번히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ahmy, *et. al.*, 2006), 다양한 연령층에서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1년의 일본 쓰나미와 2009년의 미국 허리케인 이후의 사망자에 대한 추모에서도 자연 현상에 충격, 공포감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상실한 대상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지만, 상실한 대상에 대한 죄책감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Cavanagh, *et. al.*, 2014; Recuber, 2012).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외국의 재난 이후 연구의 경우 대부분 사건 직후와 1주기, 2주기 이상의 시점 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발생 후 1년 동안 벌어진 대부분의 추모 행사를 조사하여 월별로 추모행사에 대

한 세밀한 분석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추모와 관련된 주제는 대부분 인문학이나 종교학에서 연구되었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적 상실에 대한 애도를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나 공동체적 상실 이후의 추모 현상을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리학적 관점으로 추모 현상을 분석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실제 조사된 추모 행사는 총 540개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492개보다 많았으나 주체가 불분명한 48개의 행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행사들이 추모와 관련한 어떤 정서와 주제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추모 행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양한 정서와 주제를 담고 있었던 추모 집회, 추모 문화제, 촛불 집회 등의 행사를 주최한 주체가 명확하지 못해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 국내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공동체의 추모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 재난 이후 추모 현상과의 비교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가진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제언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직후와 1주기에는 재난에 대한 추모 행사가 급격히 증가하며 그 속에서 슬픔, 분노 등의 정서가 표출되고 동시에 사건과 희생자에 대해 기억하려는 대중의 추모 양상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특정 시기에 대중이 추모 행사를 통해 상실에 대한 정서를 함께 나누고 사건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집단 추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 연구로 세월호 사건 이후의 추모 현상을 분석하였으나 세월호 사건 하나의 사례로 전체 재난에 대한 추모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재난 이후의 추모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 사건 이후의 일반적인 추모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재난과 국외 재난 이후 추모 현상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는 추모 행위가 있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세월호 이후 1년 동안의 추모 행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사건 발생 1년 이후의 추모 행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 발생 직후 1년간의 패턴과 비교해 보고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References

- Allen, J. G. 2008.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What Do Psychologists Do at the Disaster*. Retrieved Mar. 15, 2010 from <http://apa.org/helpcenter/disaster-site.aspx>
- Auwera, S. V. and L. Schramme. 2014. Commemoration of the Great War: A Global Phenomenon or a National Agenda? *Journal of Conflict Archaeology*. 9(1): 3-15.
- Barron, J. 2012. *Nation Reels after Gunman Massacres 20 Children at School in Connecticut*. The New York Times.
- Biberman, Y. and F. Zahid. 2016. Why Terrorists Target Children: Outbidding, Desperation, and Extremism in the Peshawar and Beslan School Massacre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016: 1-16.
- Boss, P. and C. Ishii. 2015. Trauma and Ambiguous Loss: The Lingering Presence of the Physically Absent. *Traumatic Stress and Long-Term Recovery*. 2015: 271-289.
- Cavanagh, S. R., E. J. Fitzgerald, and H. L. Urry. 2014. Emotion Reactivity and Regulation are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Functioning Following the 2011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Crisis in Japan. *Emotion*. 14(2): 235.
- Corning, H. and A. Schuman. 2013. Collective Memory and Autobiographical Memory: Similar but not the Same. *Memory Studies*. 7(2): 146-160.

- Fahmy, S., S. Cho, W. Wanta, and Y. Song. 2006. Visual Agenda-setting after 9/11: Individuals' Emotions, Image Recall, and Concern with Terrorism. *Visual Communication Quarterly*. 13(1): 4-15.
- Feigenson, N. R. 2002. Emotions, Risk Perceptions and Blaming in 9/11 Cases. *Brook. L. Rev.*, 68: 959.
- Fredrickson, B. L. and M. Tugade.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65-376.
- Gilliland, B. and R. James. 1996.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3rd ed.). Belmont, CA:Brooks/Gole.
- Goleman, D. 2003. *Healing Emotions*. Shambhala Publications.
- Gudjons, H. 1996. Der Verlust des Todes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Wie Wir das Sterben, Trauern und Leben Wiedergewinnen. *Pädagogik*. 9: 6-13.
- Halpern, J. and M. Tramontin. 2007. *The Psychological Aftermath of Terrorism: The 2001 World Trade Center Attack*. (2nd ed.). Wasington, D. C.: ICMA Press.
- Hooyman, N. R. and B. J. Kramer. 2013. *Living through Loss: Interventions across the Life Span*. Columbia University Press.
- James, R. and B. Gilliland.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4th ed.). Belmont, CA: Thomson Learning.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2): 113-136.
- Kaler, M. E., P. A. Frazier, S. L. Anders, T. Tashiro, P. Tomich, H. Tennen, and C. Park. 2008. Assess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World Assumptions Sca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3): 326-332.
- Kast, V. 1988. *A Time to Mourn: Growing through the Grief Process*. Daimon.
- Kaufman, G. 2004.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eppel, G. and S. Zedeck. 1989. *Data Analysis for Research Designs*. Macmillan.
- Kim, Su Ji, Ida Martinson, Kyung Lim Sin, and Soon Ok Yang. 1994. Experience Mother's Pain Who Loss Child-Parse' Human Becoming Methodology Applied. *Nursing Science*. 6: 5-31.
- Lee, Hong Suk, Jae Ho Lee, and Yoon Kyung Choi. 2015. Retroaction of Group Emotion in Comment of Sewol Ferry Disaster News. *Korea Psychology Association Symposium Source Book*. 201-204.
- Litterfield, C. H. and J. P. Rushton. 1986. When a Child Dies: The Sociobiology of Berea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797-802.
- Littleton, H., A. Grills-Taquechel, and D. Axsom. 2009. Resource Loss as a Predictor of Posttrauma Symptoms among College Women Following the Mass Shooting at Virginia Tech. *Violence and Victims*. 24(5): 669-686.
- Malamah-Thomas, A. 2011. *The Grief of Nations an Analysis of How Nations Behave in the Wake of Loss: Does It Constitute Grief?* The University of Bath Press.
- Miller, J. L. 2012. *Psychosocial Capacity Building in Response to Disasters*. Columbia University Press.
- Mithander, C. and J. S. Mithander. 2007. *Collective Traumas: Memories of War and Conflict in 20th-Century Europe*. P.I.E.
- PETER LANG
- Morris, G. P. 1982. The Kenner Airliner Disaster. A 727 Falls into a New Orleans Suburb. *JEMS: a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7(9): 58-65.
- Ochberg, F. 2013. *Post-Traumatic Therapy and Victims of Violence*. 11. Routledge.
- Parkes, C. M. 2006. *Love and Loss: The Roots of Grief and Its Complications*. Routledge.
- Parkes, C. M. 2008. Bereavement Following Disaster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63-484.
- Parkes, C. M. and H. G. Prigerson. 2013.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4th ed.). Routledge.
- Pivnick, B. A. 2011. Enacting Remembrance: Turning Toward Memorializing September 11th.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0(3): 499-515.
- Rando, T. A. 1997. Vicarious Bereavement. *Death and the Quest for Meaning: Essays in Honor of Herman Feifel*. 257-274.
- Recuber, T. 2012. The Prosumption of Commemoration Disasters,

- Digital Memory Banks, and Online Collective Memor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6(4): 531-549.
- Saito, H. 2006. Reiterated Commemoration: Hiroshima as National Trauma. *Sociological Theory*. 24(4): 353-376.
- Slochower, J. 2011. Out of the Analytic Shadow: On the Dynamics of Commemorative Ritual. *Psychoanalytic Dialogues*. 21(6): 676-690.
- Small, D. A., J. S. Lerner, and B. Fischhoff. 2006. Emotion Priming and Attributions for Terrorism: Americans' Reactions in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olitical Psychology*. 27(2): 289-298.
- Stroebe, M., W. Stroebe, H. Schut, E. Zech, and J. Van Den Bout. 2002. Does Disclosure of Emotions Facilitate Recovery from Bereavement? Evidence from Two Prospective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169.
- Sullender, R. S. 2010. Vicarious Grieving and the Media. *Pastoral Psychology*. 59(2): 191-200.
- Summerfield, D. 1995. Addressing Human Response to War and Atrocity. *Beyond Trauma*. Springer US: 17-29.
- UNDP. 1996. *UNDP's 1996 Report on Human Development in Bangladesh: A Pro-Poor Agenda, Volume 3: Poor People's Perspectives*. UNDP, Dhaka, Bangladesh.
- Updegraff, J. A., R. C. Silver, and E. A. Holman. 2008. Searching for and Finding Meaning in Collective Trauma: Results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709.
- Walsh, F. 2007. Traumatic Loss and Major Disasters: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e. *Family Process*. 46(2): 207-227.
- White, M. 2004. Working with People Who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Multiple Trauma: A Nar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Narrative Therapy & Community Work*. 2004(1): 45.
- Williams, K. M., D. L. Paulhus, and C. Nathanson. 2003. Personality and Political Predictors of Emotional Reactions to 9/11. *Poster Presented at the 83rd Annual Convention of the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lliams, J. 2012. 'The Truth' of the Hillsborough Disaster is Only 23 Years Late. British Politics and Policy at LSE.
- Worden, J. W. 200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Yassen, J. 1995. Preventing Secondary.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23: 178.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수지, Ida Martinson, 신경림, 양순옥. 1994. 자녀를 상실한 어머니의 고통체험: Parse의 Human Becoming 방법론 적용. *간호과학*. 6: 5-31.
- 이홍석, 이재호, 최윤경. 2015. 세월호 뉴스 댓글에 내재된 집단 정서의 역동성.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04.

Received: May. 10, 2016 / Revised: Jun. 7, 2016 / Accepted: Jun. 13, 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의 반응이 추모 행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재난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세월호 추모 행사를 주최한 주체를 유가족, 시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모의 빈도수를 살펴보았으며, 추모행사에서 드러난 정서와 추모행사의 주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추모 행사 빈도는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과 사건 발생 1주기인 2015년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추모 행사에서 나타난 주된 정서는 슬픔과 분노였고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주제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었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서 주된 희생자였던 고등학생들의 속성과 관련하여, 아직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자 가정에서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녀들이 때 이른 나이에 어른들의 미흡한 처사로 목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많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재난, 외상성 상실, 추모, 세월호 사건

-
- Profiles **Hee Jeong Moon** : She received her B.A. M.A.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6. Areas of her interest is collective trauma(tofreeway@naver.com).
- Hye Sun Joo** : She received her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2. She i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Areas of her interest are counseling psychology & trauma(healingtrauma@daum.net).
- Hyun Nie Ahn** : She received her Ph.D. from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in 2001.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Areas of her interest are counseling psychology & trauma(ahn12@ewha.ac.kr).